

## &lt;劉生&gt; 표제 시가의 創作과 傳承에 관한 研究

우 강 식\*

## &lt;目次&gt;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樂府詩集》 <劉生> 표제 시가의 특징 |
| II. '劉生'과 그에 관한 기록         | V. <劉生> 표제 시가의 전승         |
| III. 《樂府詩集》 <劉生> 표제 시가의 내용 | VI. 나오는 말                 |

## I. 들어가는 말

郭茂倩(1084전후)의 《樂府詩集》에는 <劉生>, <渡易水>, <結客少年場行>, <游俠篇>, <秦女休行>, <白馬篇> 등등의 표제와 변체에 100여 수가 넘는 俠을 노래한 시가들이 수록되어있다. 이들은 대체로 전통 游俠을 제재로 한 것과 俠女の 복수를 다룬 내용, 그리고 從軍과 遊宴 등을 내용으로 한 시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역사와 민간에서 전하는 俠을 제재로 한 시가로는 荆軻를 노래한 <渡易水> 표제의 시가와, 秦女休를 노래한 <秦女休行> 표제의 시가와 劉生을 노래한 <劉生> 표제의 시가 등이 있다.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劉生> 표제의 시가는 游俠이 지닌 원시적인 야성을 과장하고 호방한 游俠의 풍격을 강조한 詠俠詩歌의 한 형식으로 이해되고 있다.<sup>1)</sup> 俠은 고대 중국의 독특한 문화적 의미를 지닌 사회 계층이라 할 수 있는데, 무장역량을 갖추고 있는 俠은 춘추전국의 혼란한

\* 서라벌대학 국제비즈니스과 전임강사

1) 李曉芹, &lt;《樂府詩集》中的游俠詩&gt;, 《山西大學師範學院學報》 第1期(1996).

사회 환경에서 “그 말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으며, 그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 있고, 이미 허락한 것에는 반드시 성실히 하고,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며, 士의 곤란함에 달려간다. 그리고 生死存亡은 버려두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며, 그 공덕을 부끄러워하는”<sup>2)</sup> 기질을 지니고 민간을 통해 발전했다. 司馬遷의 언급처럼 俠은 信義를 중시하고 利他主義 정신을 지닌 자들로 詠俠詩歌의 창작은 바로 문인들이 俠의 이러한 기질과 행위를 칭송하거나, 혹은 俠을 빌어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는 경로로 삼게 되면서 있게 되었다.<sup>3)</sup>

詠俠詩歌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 그 가운데 <劉生> 표제의 시가는 민간 영웅의 일화와 그의 이미지가 상층문인사회에 전래되고 수용되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몇몇 논문에서 단편적인 언급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작품의 분석과 의의를 다룬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라 하겠다.<sup>4)</sup> 본고에서는 《樂府詩集》에 수록된 <劉生> 표제의 시가 9수와 《樂府詩集》 이후 <劉生>을 표제로 하여 창작된 시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詠俠詩歌의 범주에서 민간에서 전래되는 영웅에 대한 일화와 형상이 시가를 통해 어떠한 형태와 의미로 표현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sup>5)</sup>

- 
- 2) 其言必信, 其行必果, 已諾必誠, 不愛其軀, 赴士之阨困. 既已存亡生死矣, 而不矜其能, 羞伐其德. (《史記·游俠列傳》)
  - 3) 詠俠詩歌의 창작에 대해서 대체로 漢魏 연간 민간의 樂府古詩에서 시작하였고, 曹植(192~232)의 <白馬篇>이 선구작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柳卓霞, <20世紀以來唐前詠俠詩研究的回顧與展望>, 《中國詩歌研究同態》 第2期(2007))
  - 4) “劉生” 관련 시가에 대한 연구는 劉航, <劉生·王昌考>, 《北京大學學報》, 43:5 (2006); 李曉芹, <《樂府詩集》中的游俠詩>, 《山西大學師範學院學報》 第1期(1996); 陳山, 《中國武俠史》(上海: 三聯書店, 1992), 135-158쪽; 張志和, 鄭春元, 《中國文史中的俠客》(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294-310쪽; 吳采蓓, 《魏晉南北朝詠俠詩研究》, 國立臺灣大學中國文學研究所, 2005, 碩士; 林香伶, <試論樂府詩中擬樂府現象的雕塑與再造——以游俠詩<劉生>系列創作為例>, 《中國古典文學研究》 第二期(1999) 등이 있다.
  - 5) 林香伶은 현존하는 <劉生> 표제의 시가를 《樂府詩集》의 9수와 楊炯과 韓愈의 <劉生> 시를 포함하여 11수라고 하였지만, 隋唐 이후 文同, 李先芳, 曹勛

## II. ‘劉生’과 그에 관한 기록

劉生이 어느 시대, 어느 지방의 사람인지 그의 생졸과 활동지역 및 그의 행적에 대한 정확한 사료적 근거는 전하고 있지 않는다. 단지 현재 추측할 수 있는 것은 《樂府詩集》 <劉生> 시가의 <解題>에서 언급한 내용과 <劉生> 시가에서 노래한 내용 등에 근거하여 劉生에 대한 개략적인 형상과 활동 지역 등에 관한 것이다.

《樂府解題》에는 “劉生은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齊梁 이래로 劉生이라는 말은 모두 劉生의 任俠를 행하며 호방함을 칭하는 말인데, 五陵과 三秦 지역을 주유했다고 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가 검을 차고 정벌에 힘쓰는 符節官이었다고 했는데, 그 정확성의 여부는 알 수 없다”라고 하였다. 《古今樂錄》에 의하면, “<梁鼓角橫吹曲>에는 <東平劉生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劉生이 아닌가 한다”라고 하였다.<sup>6)</sup>

또 《古今樂錄》에서 언급한 <東平劉生歌>를 보면;

東平劉生安東子,      東平 땅 劉生 安東子여,  
樹木稀,              인적 없는 마을 초목이 드물고,  
屋裏無人看阿誰?      집에는 아무도 없는데 누구를 의지하나?<sup>7)</sup>

<梁鼓角橫吹曲>은 북방의 민가를 채록한 것인데, <解題>에서 추측한 것

---

등이 劉生을 표제로 하여 시가를 창작하였다. 본고에서는 《樂府詩集》의 <劉生> 시가와 劉生의 기질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시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林香伶, <試論樂府詩中擬樂府現象的雕塑與再造——以游俠詩<劉生>系列創作為例>, 《中國古典文學研究》 第二期(1999), 43쪽 참조.)

- 6) 《樂府解題》曰: “劉生不知何代人, 齊梁已來為劉生辭者, 皆稱其任俠豪放, 周遊五陵三秦之地. 或云抱劍專征, 為符節官所未詳也.” 按《古今樂錄》曰: “梁鼓角橫吹曲, 有<東平劉生歌>, 疑即此劉生也.”(《樂府詩集·橫吹曲辭四·劉生》)
- 7) 《樂府詩集·橫吹曲辭五·東平劉生歌》

처럼 <東平劉生歌>의 劉生이 郭茂倩이 말한 劉生이 맞다면, 劉生은 본래 북방에서 활약하던 민간 영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관한 영웅담이 南朝에 전파되어 영웅을 동경하는 문인들에 수용되어 시가로 노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혹자는 泰山과 黃河 사이에 위치한 山東省 “東平縣”의 지리적 요인과 東平王 劉蒼의 관계에 기인하여 <東平劉生歌>의 劉生은 <後漢書·光武十王列傳> <東平憲王蒼>의 東平王 劉蒼의 후손을 말한다고 하였다.<sup>8)</sup> 그렇지만 결국 <解題>와 <東平劉生歌>, 그리고 시가를 통해서 모두 劉生의 정확한 생졸과 형상은 제시되지 않았고, 모호한 상황이라 하겠다. 주어진 자료들을 통해 劉生의 형상을 추측해보면, 劉生은 한편으로 고독한 형상으로 그려지기도 하였고, 南朝 齊梁 시기 이래 俠客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지니면서 문인들의 작품 속에 표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劉生은 시가를 통해 “長安을 유력하던 俠客은, 역참을 설치 하니 新豐을 지나네<sup>9)</sup>와 “齊나라 땅 五都 넘나들며 유희생활을 하였고, 陝西 三秦 땅을 오갔네<sup>10)</sup>와 같이 주로 長安을 중심으로 한 陝西省 일대인 五陵과 三秦 지역을 주유하면서 任俠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劉生은 순수한 民間俠의 형상을 지니는 것에서 때로는 “검을 차고 명을 받아 정벌에 나서고자 했던<sup>11)</sup> 것처럼 천자의 명을 받은 符節官의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劉生을 표제로 한 시가는 북방 민간에서 전래되는 영웅과 그의 일화가 南朝에 전파되었고, 南朝의 문인들은 영웅에 대한 기대와 상상을 劉生을 통해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sup>12)</sup>

8) 劉航, <劉生·王昌考>, 《北京大學學報》 43:5(2006) 참조.

9) 遊俠長安中, 置驛過新豐。(陳叔寶, <劉生>)

10) 遊俠五都內, 去來三秦中。(弘執泰, <劉生>)

11) 抱劍欲專征。(盧照鄰, <劉生>)

12) 陶春林·馬品, <曹植<白馬篇>對魏晉南北朝游俠及游俠詩的導向作用>, 《江淮論壇》 第04期(2007); 陳山, 《中國武俠史》(上海: 三聯書店, 1992), 149-153쪽 참조.

### III. 《樂府詩集》 <劉生> 표제 시가의 내용

《樂府詩集·橫吹曲辭四》 <劉生> 표제에는 총 9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橫吹曲辭·解題>에는 “橫吹曲은 처음에는 역시 鼓吹라고 했는데, 말 위에서 연주하고, 대개 군중의 음악이다. 북방의 오랑캐 나라에서는 모두 말 위에서 음악을 연주했다. 그래서 한 이래로 북방 오랑캐의 음악은 모두 鼓吹署에 귀속시켰다. …… 李延年이 호곡을 개조하여 <新聲二十八解>를 지었고, 황제는 이를 武樂으로 삼았으며, 後漢에는 변방의 장수에게 주었으며, 和帝 시기에는 萬人將軍이 그것을 사용했다”<sup>13)</sup>라고 橫吹曲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橫吹曲辭>에 수록된 시가는 대부분 군가의 일종이며, 그 내용은 대체로 군대와 정벌과 관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樂府詩集》 <劉生> 표제의 시가 역시 전체적으로 이러한 의미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劉生을 통해 시인의 호방한 기상을 표현한 것과 懷才不遇한 심정을 노래한 것, 그리고 귀족들의 생활상을 묘사하는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 1. 호방한 기상의 표현

<解題>에서 “齊·梁 이래로 劉生이라는 말은 모두 劉生의 任俠을 행하며 호방함을 칭하는 말”이라고 하였듯이 <劉生> 표제 시가에서 劉生은 호방한 기상과 결부하여 표현되었고, 이는 <劉生> 표제 시가의 주된 정서를 이룬다고 하겠다.

13) 橫吹曲, 其始亦謂之鼓吹, 馬上奏之, 蓋軍中之樂也. 北狄諸國, 皆馬上作樂, 故自漢已來, 北狄樂總歸鼓吹署. …… 李延年因胡曲更造新聲二十八解, 乘輿以爲武樂, 後漢以給邊將, 和帝時萬人將軍得用之.(《樂府詩集·橫吹曲辭》)

劉生 陳叔寶(553~604)

遊俠長安中, 長安을 유력하던 俠客은,  
置驛過新豐. 驛참을 설치하니 新豐을 지나네.  
擊鐘蒲壁磬, 蒲壁磬 두드리며,  
鳴絃楊葉弓. 楊葉弓 활시위 울리었네.  
孟公正驚客, 孟公이 좌중의 손님을 놀라게 하였고,  
朱家始賣僮.<sup>14)</sup> 朱家は 가노들을 사들이기 시작하였네.  
羞作荊卿笑, 荊卿의 비웃음 되는 것 부끄러워,  
捧劍出遼東. 검을 들고 요동으로 나서네.

陳叔寶는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면서 정사를 등한시하다가 결국 隋나라 楊廣에 의해 멸망당한 망국의 황제였다. 그래서 그의 俠를 노래한 시기는 대체로 “길가에는 신선한 꽃들이 어지럽게 피어있고, 잎사귀 속의 봄새가 춘정을 보내네. 長安의 游俠에게는 동반자가 무수히 많으니, 백마 흑마가 길에 가득하다네”<sup>15)</sup>와 같이 유약한 정서가 주를 이룬다. 이 시에서는 俠의 외형은 비록 蒲壁磬과 楊葉弓 등을 운운하며 화려하게 장식했지만, 결국 陳遵과 荊軻 같은 俠客을 떠올리며 국난에 나선다는 俠客의 사명감을 말하고 있다. 이는 시인이 俠를 흠모하는 가운데 영웅을 구하여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제왕의 호방한 기상이 있음을 劉生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義氣를 중시하는 것은 古典俠의 질박한 기질 가운데 하나인데, 江暉는 이러한 의기를 중시하는 기상을 劉生을 통해 노래하고 있다.

劉生 江暉

五陵多美選, 五陵이 있는 長安에는 훌륭한 이들로 가득 찼고,  
六郡盡良家. 서북 변경 六郡에는 양가집 자제들로 채웠네.

14) 季布를 구명하기 위해 周氏가 가노를 팔기 시작했고, 朱家가 가노를 사들이는 것임.(《史記·季布列傳》 참조)

15) 陌頭新花歷亂生, 葉里春鳥送春情. 長安游俠無數件, 白馬駟珂路中滿. (陳叔寶, <烏栖曲>)

劉生代豪蕩,	劉生은 호탕함으로 당당하게 서니,
標舉獨榮華.	그 빼어남은 홀로 빛나는구나.
寶劍長三尺,	삼 척의 보검을 차고,
金樽滿百花.	금 술잔에는 백화가 가득하네.
唯當重意氣,	의기만을 중히 여기는 것 마땅한데,
何處有驕奢.	어디에 교만과 사치스러움 있을 수 있겠는가?

시에서는 도성과 변방 모두 양가집 자제와 인재들로 가득하지만, 오직 의기만을 중시하며 손에는 보검을 지니고 그 가운데 위풍당당하게 홀로선 劉生의 기상을 칭송하고 있다.

江總(519~594) 또한 호기호운 기상과 함께 문무를 겸비하고 세상에 그 재능을 드러내고자 하는 劉生를 노래하였다.

劉生 江總	
劉生負意氣,	劉生은 험기를 품고,
長嘯且徘徊.	길게 휘파람 불며 배회하네.
高論明秋水, <sup>16)</sup>	고상한 주장을 펼치니 은빛 劍光을 빛나게 하고,
命賞陟春臺.	상을 명받아 春臺에 오르네.
干戈侷儻用,	방패와 창은 높은 뜻과 기개에 사용되고,
筆硯縱橫才.	붓과 베틀은 마음껏 재능을 드러내네.
置驛無年限,	역참을 설치하니 연한이 없고,
游俠四方來.	游俠은 사방에서 오는구나.

16) 보검은 예로부터 “태아검의 색은 가을 물과 같이 보인다.(太阿劍色, 視之如秋水. 《越絕書》)”, “예로부터 내려오는 물 한 줄기, 나의 손과 마음을 향하여 흐른다. 떠나가기 전 그대에게 조출히 그대에게 주나니, 미약하고 보잘 것 없다고 원망 마시오.(一條古時水, 向我手心流. 臨行瀉贈君, 勿薄細碎仇. 劍又, <姚秀才愛予小劍因贈>”, “맑고 고요한 모습으로 옥갑 속에 있고, 가을 물은 맑디 맑고 흐르지 않네.(湛然玉匣中, 秋水澄不流. 白居易, <李都尉古劍>), “한 쌍의 동검은 빛나기가 가을 물과 같고, 두 수의 새로운 시는 검과 날카로움을 다투는구나.(一雙銅劍秋水光, 兩首新詩爭劍鋒. 蘇軾, <郭祥正家醉畫竹石壁上郭作詩為謝且遺古銅劍>)” 등과 같이 검의 맑은 빛을 두고 秋水에 비유해서 표현되었다.

劉生을 통해 시인의 호방한 기상을 칭송하는 것은 隋唐 이후로 오면 전장에 나아가 공훈을 세우고자하는 邊塞風의 경향을 더하여 표현된다.

劉生 弘執泰

英名振關右,	영웅스런 이름은 潼關 서쪽 관서 땅에 떨치고,
雄氣逸江東.	영웅스런 기개는 江東 땅에 넘쳤네.
遊俠五都內,	齊나라 땅 五都 넘나들며 유협생활을 하고,
去來三秦中.	陝西 三秦 땅을 오갔네.
劍照七星影,	보검엔 칠성의 무늬 비취고,
馬控千金驄.	천금의 청총마 고비를 당기네.
縱橫方未息,	천하를 누비느라 쉴 틈 없었지만,
因茲定武功.	이리하여 무공을 세웠다네.

隋나라 시기는 아직 전운이 가시지 않는 시기였고, 이러한 때에 홀로 七星寶劍을 쥐고 종횡으로 천하를 누비며 공을 세우고자하는 劉生의 호방한 기상을 칭송하고 있다.

盧照鄰(650~687)은 국난에 직면해 종군을 갈망하는 劉生의 의지를 한층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시를 살펴보면;

劉生 盧照鄰

劉生氣不平,	劉生은 불공평한 일에 憤氣하며,
抱劍欲專征.	검을 차고 명을 받아 정벌에 나서고자 하네.
報恩爲豪俠,	은혜를 갚고자 협객이 되었으니,
死難在橫行.	나라의 위난에 목숨을 바쳐 거리낌 없이 싸웠네.
翠羽裝劍鞘,	비취색 깃으로 보검을 장식하고,
黃金飾馬纓.	황금으로 말의 가슴걸이를 꾸몄네.
但令一顧重,	단지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위한 보답을 중히 여길 뿐,
不吝百身輕.	일백 번 희생하는 것 아까워하지 않네.

시에서 출정을 앞둔 劉生의 외형은 비록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지만, 포

현하고자 한 것은 결국 국가를 위해, 그리고 知己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俠客의 기상을 노래한 것이다. 南朝 시기의 <劉生> 시가에서 주로 劉生의 호방한 俠客의 형상이 노래되었다면, 隋唐 이후에는 정의를 추구하는 俠客의 본성에다가 국난에 직면하여 주저 없이 從軍하고자 하는 의지로 표현되었다.

## 2. 懷才不遇한 심정 토로

강건한 기상 이면에는 언제나 뛰어난 재능이 쓰임을 받지 못함에서 오는 답답함이 있기 마련인데, 劉生은 시인의 이러한 처지에 기탁되어 노래 되기도 하였다.

劉生 徐陵(507~583)

劉生殊倜儻,	劉生은 남달리 대범하고 빼어나니,
任俠遍京華.	任俠하며 번화한 서울을 누볐네.
戚里驚鳴笳,	戚里的 권세가들은 笳소리에 놀라고,
平陽吹怨笳.	平陽에는 구슬픈 피리소리 들렸네.
俗儒排左氏,	속된 선비는 左丘明의 <左氏春秋傳>을 배척하고,
新室忌漢家.	王莽의 新 왕조는 漢 나라 왕실을 꺼려하네.
高才被擯壓,	높은 재능을 지녔어도 배척당해 억압받으니,
自古共憐嗟.	예로부터 불우한 인재 두고서 모두 동정하고 개탄했다네.

시에서는 먼저 劉生의 빼어난 기상과 任俠행위를 칭송하였다. 그러나 이어서 西漢 초 韓信을 비롯한 彭越, 黥布 등 공신과 외척들의 불우한 결말, 그리고 樓護, 陳遵 등의 비극적인 결말 등을 노래하였다. 결국 큰 뜻과 재능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을 말하면서 이를 통해 호방한 기상과 뛰어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임을 받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불우한 인재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다. 이는 동시에 劉生을 통해 시인 자신의 懷才不遇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3. 풍광과 서정 묘사

劉生 蕭繹(508~554)

任俠有劉生,	俠를 행하는 이 가운데 劉生이라는 자 있으니,
然諾重西京.	약속을 지키는 것을 西京보다 중히 여겼네.
扶風好驚坐,	扶風에선 좌중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고,
長安恆借名.	長安에선 항상 그의 이름을 빌렸다네.
榴花聊夜飲,	유화주로 밤의 술자리를 즐겼고,
竹葉解朝醒.	죽엽주로 아침의 숙취를 해소했네.
結交李都尉,	李都尉(李陵)같은 사람과 친분을 맺고,
遨遊佳麗城.	풍광 좋은 성에서 유유자적 하였네.

蕭繹은 侯景의 난을 평정하고 즉위한 황제로 정치정변이 이어지는 南朝 시기의 혼란한 정국은 무엇보다 신의를 중시하는 劉生 같은 영웅을 갈망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劉生을 통해 扶風의 俠客 陳遵과 이름을 같이하며, 李陵 같은 호걸과 교제하는 호방한 기상이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扶風과 長安 등 도시를 오가며 미주를 마시고, 조석으로 연회를 즐기며 귀족 호걸들과 친분을 맺고 그곳에서 유유자적하는 劉生을 노래하고 있다.

또 劉生을 빌어 당시 귀족들의 생활상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張正見(? ~582前)의 <劉生> 시를 살펴보면;

劉生 張正見

劉生絕名價,	劉生은 뛰어난 명성을 누리고,
豪俠恣游陪.	호협은 마음껏 노니는 것을 더하네.
金門四姓聚,	궁문에는 명문세족들이 모여들고,
繡轂五侯來.	아름답게 장식한 수레를 타고 五侯가 오네.
塵飛馬腦勒,	먼지는 馬腦의 재갈에 흩날리며,

酒映碑磔杯. 술은 碑磔杯에 비추이네.  
別有追遊夜, 달리 밤을 쫓아 노닐고자,  
秋窗向月開. 가을 창은 달을 향해 열어젖히네.

시에서 劉生은 비록 호방한 기상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그의 기상이 강조되기 보다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여 호화롭게 장식한 명문귀족들 속에서 명성을 누리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향유함을 노래하고 있다.

劉生의 영웅적인 형상은 도시의 풍광과 함께 시인의 서정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柳莊(생졸미상, 後梁 隋 연간)의 <劉生> 시를 살펴보면;

劉生 柳莊  
座驚稱字孟, 좌중을 놀라게 하니 字를 孟이라 하고,  
豪雄道姓劉. 호방하고 영웅다움은 姓을 劉라 하네.  
廣陌通朱邸, 널따란 길은 朱邸(왕과 후의 저택)로 통하고,  
大路起青樓. 대로에는 青樓(귀족들의 저택)가 솟아있네.  
要賢驛已置, 어진 이를 구하려 역참을 이미 설치하였고,  
留賓轄且投. 손님을 머물게 하려 비녀장을 또 던지네.  
光斜日下霧, 빛은 비스듬히 날은 저물고 안개 드리우며,  
庭陰月上鉤. 뜰에 그늘 드리워지고 초승달 떠오르네.

세상은 陳遵같은 俠士를 흠모하고 이를 구하고자 하는 심정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王侯와 귀족들의 저택이 솟아 있는 화려한 도성의 풍광과 그 속에 노닐고 있는 劉生을 표현하고 있다. 南朝 시기는 정치적인 혼란에 비하면 도시경제는 상대적으로 발달하였고 이러한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도시의 발달과 함께 귀족들의 향락과 사치를 추구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고 하겠다.

## IV. 《樂府詩集》 &lt;劉生&gt; 표제 시가의 특징

앞 장을 통해 《樂府詩集》 <劉生> 표제의 시가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劉生의 형상과 任俠한 지역은 전체적으로 <解題>에서 언급한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다. 그 가운데 任俠 도구로써의 劍과 劉生의 관계, 任俠 공간으로써의 長安의 의미, 그리고 典故의 사용을 통한 劉生의 형상을 강조한 것 등을 중심으로 시가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겠다.

## 1. 劍의 이미지 투영

<解題>를 통해서도 劉生은 “검을 차고 정벌에 힘쓴다(抱劍專征)”고 하였듯이, <劉生> 시가에서 劉生은 검과 밀접하게 관련지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劉生은 검을 차고 용감히 정벌에 나서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였고(捧劍出遼東; 抱劍欲專征), 혹은 검을 통해 劉生의 고상한 기상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며(高論明秋水), 혹은 보검의 신비스런 형상을 통해 劉生의 의기를 강조하기도 하는(劍照七星影; 寶劍長三尺) 등과 같이 <劉生> 시가에서는 전체적으로 검을 쥔 劉生의 형상을 떠올리게끔 하고 있다. 검을 통해 劉生의 俠士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은 고대로부터 있어왔던 중국의 검을 신성시하고 숭배하는 관념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陳山은 심지어 중국의 崇劍思想은 강하고 용맹스러운 민족 기질을 표현한 것이고, 武俠이 탄생한 날로부터 사람들은 바로 그들과 검을 연계하였다고까지 하였다.<sup>17)</sup> 곧 검은 俠의 行俠 도구로써 “날선 검은 손에서 우니, 한칼에 두 토막 내어 죽이네”<sup>18)</sup>라는 것처럼 俠이 주어진 공간에서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작용을 하였다. 그리고 검은 동시에 俠의

17) 陳山, 《中國武俠史》(上海: 三聯書店, 1995), 7-10쪽 참조.

18) 利劍鳴手中, 一擊而尸僵.(曹植, <結客篇>)

형상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검의 이미지는 더 나아가 短兵器로써의 단순한 기능적인 의미 이외에 靜的인 의미가 부여되어 정의로우름을 상징하며, 신비스러운 의미까지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마치 賈島(779~843)가 <劍客>에서 “십년동안 한 자루 칼 같았으나, 서릿발 같은 칼날 아직 시험조차 못했네. 오늘 칼 잡아 그대에게 보여 주노니, 누구 억울한 일 있는가?”<sup>19)</sup>라고 노래한 것처럼 검은 정의로운 俠客의 의지를 상징하기도 하였다. 또 歐陽修(1007~1072)가 <寶劍>에서 “이 劍이 인간 세상에 있으면, 온갖 요괴가 밤에 모습을 감추네. 奸凶과 아침꾼은, 몹시 놀라 간담이 서늘하게 된다네”<sup>20)</sup>라고 노래한 것처럼 문인들이 바라보는 검은 사악한 무리를 쫓는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지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俠은 문인들의 의식 속에 잠재된 崇劍思想과 연계하여 표현되고 있는데, <劉生> 시가에서 劉生과 결부하여 노래된 검 또한 行俠하는 도구로써 劉生의 형상을 생동적이고 풍부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그의 고상하며 호방한 기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겠다. 이는 문인들은 劉生을 통해 검에 자신의 호방한 정서를 기탁하였고, 또 검을 통해 공명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sup>21)</sup>

## 2. 任俠 배경으로써의 長安

<解題>에서 劉生은 “五陵과 三秦 지역을 주유했다(周遊五陵三秦之地)”고 하였는데, <劉生> 시가에서 劉生은 “長安恆借名”, “遊俠長安中”, “五陵多美選”, “去來三秦中”, “任俠遍京華”, “年長入三秦” 등과 같이 주로 長安을 중심으로 한 陝西省 일대 도시를 배경으로 하여 任俠 행위를 한 것으로 노래되고 있다. 《漢書·游俠傳》에는 “長安은 번성하였고, 거리와 마

19) 十年磨一劍, 霜刃未曾試. 今日把示君, 誰有不平事.(賈島, <劍客>)

20) 此劍在人間, 百妖夜收形. 奸凶與佞媚, 膽破骨亦驚.(歐陽修, <寶劍>)

21) 陳平原, 《千古文人俠客夢》(北京: 新世界出版社, 2002), 235쪽 참조.

을 마다 豪俠이 있었다”<sup>22)</sup>라고 전하고 있으며, 또 盧照鄰은 “長安에는 游俠을 중히 여기고, 낙양에는 財雄이 풍부하네<sup>23)</sup>”라고 노래 한 것처럼 漢代 이후 長安은 정치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長安을 중심으로 한 일대는 민간의 俠들이 활약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민간 뿐만 아니라 상층 귀족 사회에까지 任俠 풍조가 만연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開元天寶遺事》에는 “長安의 少年俠들은 매번 봄이 되면, 친구를 사귀고 무리지어 각기 작은 말을 타고 다녔는데, 비단 갈개와 황금 안장으로 장식하고 나란히 말을 몰아 꽃과 나무 아래를 왕래하였다”<sup>24)</sup>고 당시 長安을 중심으로 만연한 귀족자제들의 任俠의 풍조를 전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任俠의 풍조는 民間俠의 형상을 띤 劉生과 같은 인사들이 도시를 배경으로 활약할 수 있는 양질의 분위기를 제공한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劉生은 “李都尉 같은 사람과 친분을 맺고, 풍광 좋은 성에서 유유자적 하는 것(結交李都尉, 遨遊佳麗城)”처럼 長安은 劉生에게 상층관료들과 교제하면서 변화한 도시를 유력하는 것에 양질의 환경을 제공한 것이라 하겠다. 이는 다른 한편으론 劉生에게 民間俠의 이미지를 벗어나 入官의 의지를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문인들은 이러한 劉生을 통해 자신의 호방한 기상과 이상을 기탁했던 것이라 하겠다. 말하자면, 도시를 배경으로 한 劉生의 활약과 교류는 민간의 俠文化가 상층문화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상층문화가 대중문화를 개조하고 융합한 흔적이라 할 수 있겠다.<sup>25)</sup> <解題>에서도 劉生이 符節官의 신분으로 정벌에 참여했다고 했던 것처럼 劉生은 “천하를 누비느라 쉴 틈 없었지만, 이리하여 무공을 세웠고(縱橫方未息, 因茲定武功)”, 또 “은혜를 갚고자 협객이 되었으니, 나라의 위난에 목숨을 바쳐 거리낌 없이

22) 長安熾盛, 街閭各有豪俠.(《漢書·游俠傳》)

23) 長安重游俠, 洛陽富財雄.(盧照鄰, <結客少年場行>)

24) 長安俠少, 每至春時, 結朋聯黨, 各置矮馬, 飾以錦鞵金鞍, 并轡于花樹下往來.(王位裕, 《開元天寶遺事》)

25) 陳山, 《中國武俠史》(上海: 三聯書店, 1992), 152쪽 참조.

싸운(報恩為豪俠, 死難在橫行)” 것으로 묘사되었는데 劉生은 곧 국난에 맞서 주저 없이 전장을 향하는 시인의 報國의 의지를 대변하고 있는 대상으로 노래된 것이라 하겠다.

### 3. 用典을 통한 俠의 형상 강조

<劉生> 표제 시가에서는 典故의 運用을 통해 劉生의 형상을 강조하거나 혹은 俠의 기질을 표현함이 돋보이는데, 특히 南朝 시인들의 시를 중심으로 《史記》와 《漢書》 등에 전하는 陳遵, 朱家, 樓護 등 당시 수도를 배경으로 하여 활동했던 俠客들의 고사가 주로 인용되고 있다.<sup>26)</sup>

漢代로 접어들면서 俠는 豪俠이라 칭해졌는데, 이들은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일정한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세력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백성들에 군림하기도 하였고, 또 때로는 직접 통치계층에 편입되기도 하였다. 陳遵은 바로 西漢 초 豪俠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하겠는데, 《漢書》 <游俠傳>에 의하면 陳遵은 字를 孟公이라하였고 長安 부근 杜陵 사람이었다고 하였다. 또 그는 공을 세워 열후에 봉해져 長安을 중심으로 한 도시에서 귀족들과 같이 생활하였으며, 列侯 가운데 陳遵과 이름이 같은 자가 있어 들어올 때 陳孟公이라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해서 그를 陳驚座라 별칭 하였다고 하였다. 또 陳遵은 문을 잠그고 수레의 비녀장을 던지면서까지 손님을 붙잡아두고 술 마시는 것을 즐겼다고 전하고 있다. <劉生> 시가에서는 陳遵에 관한 이러한 고사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陳遵의 명성을 두려워하여 “陳驚座”라는 별칭이 있었다는 고사에 기인하여 “孟公이 좌중의 손님을 놀라게 하였고”<sup>27)</sup>, “좌중을 놀라게 하니 字를 孟이라 하였고”<sup>28)</sup>, 또 “扶風에선 좌중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고, 長安에선 항상 그의

26) 林香伶, <試論樂府詩中擬樂府現象的雕塑與再造——以游俠詩<劉生>系列創作為例>, 《中國古典文學研究》第二期(1999), 43-48쪽 참조.

27) 孟公正驚客.(陳叔寶, <劉生>)

28) 座驚稱字孟.(柳莊, <劉生>)

이름을 빌렸다”<sup>29)</sup>고 노래하였다. 그리고 陳遵이 손님을 머무르게 하기 위해 “陳遵投轄”한 고사를 인용하여 “어진 이를 구하려 역참을 이미 설치하였고, 손님을 머물게 하려 비녀장을 또 던지네”<sup>30)</sup>라고 노래하였다.

또 《史記·季布欒布列傳》에서 천하가 통일된 이후 劉邦은 현상금을 걸고 季布를 잡으려 하였고, 季布는 劉邦의 추격을 피해 河南 濮陽의 周氏집에 숨어들었다가 이후 魯나라 俠客 朱家에게 하인으로 팔려가게 되고, 朱家の 도움을 받아 결국 劉邦의 사면을 받고 벼슬하게 된다는 고사는 시가를 통해 “朱家は 가노들을 사들이기 시작하였네”<sup>31)</sup>라고 표현되었다. 그리고 《漢書·游俠傳》 <樓護傳>에서 외척인 王氏 오형제에게 기이한 음식을 진상하여 벼슬을 하사받아 제후의 반열에 오른 俠客 樓護의 고사는 “아름답게 장식한 수레를 타고 五侯가 오네”<sup>32)</sup>라고 노래되었다.

典故의 운용은 徐陵의 <劉生> 시에서 특히 돋보이는데, 먼저 《史記·高祖本紀》에서 劉邦은 천하 통일에 함께 했던 韓信, 彭越 그리고 黥布 등의 반란을 진압하고 沛縣에 들러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벌였는데, 여기서 劉邦은 직접 筑을 연주하며 “큰바람 몰아치니, 구름이 날아오르네. 천하에 위엄을 떨치며, 고향에 돌아왔네. 어떻게 용사를 얻어서 천하를 지킬 수 있을까?”<sup>33)</sup>라고 대업을 함께했던 동지를 잃은 강개한 심정을 노래했던 것과 《漢書·外戚傳》에서 武帝는 平陽侯에게 시집간 그의 누이 陽信長公主(平陽公主)를 통해 “북방의 가인이 있으니, 세상에 둘도 없이 홀로 서 있구나. 한번 돌아보면 성을 기울게 하고, 다시 돌아보면 나라를 기울게 하는구나. 어찌 모르랴, 성과 나라가 기우는 것을, 가인은 다시 얻기 어렵구나”<sup>34)</sup>라고 칭송된 傾國之色 李夫人에 관한 고사

29) 扶風好驚坐, 長安恆借名.(蕭繹, <劉生>)

30) 要賢驛已置, 留賓轄且投.(柳莊, <劉生>)

31) 朱家始賣僮.(陳叔寶, <劉生>)

32) 繡轂五侯來.(張正見, <劉生>)

33) 大風起兮雲飛揚, 威加海內兮歸故鄉, 安得猛士兮守四方!(《史記·高祖本紀》)

34) 北方有佳人, 絕世而獨立, 一顧傾人城, 再顧傾人國. 寧不知傾城與傾國, 佳人難再得.(《漢書·外戚傳》)

는<sup>35)</sup> 각기 徐陵에 의해 “威裏의 권세가들은 筑소리에 놀라고, 平陽에는 구슬픈 피리소리 들렸네”<sup>36)</sup>라고 강개한 정서로 표현되었다. 또 이와 더불어 陳遵과 樓護, 原涉 등의 俠客들이 王莽 시기에 꺾박받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것은 “王莽의 新 왕조는 劉氏의 漢 나라 왕실을 꺼려하네”<sup>37)</sup>라고 노래하였다. 이러한 典故의 운용을 통해 시인이 표현하고자 한 것은 결국 천하를 바로잡거나 혹은 기울일만한 기개와 재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고 불우한 결말을 맞은 인재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시인 자신의 처지에 기탁하여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劉生> 시가에서의 典故의 활용은 특히 南朝 시기 시인들의 작품에서 대부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인용된 陳遵과 朱家, 樓護 등은 모두 도시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俠客들로 이들을 통해 劉生의 俠客의 기질과 형상을 상대적으로 강조했을 뿐 아니라 단순히 俠를 모방하고 칭송하는 단계를 넘어 동시대를 살았던 俠客을 칭송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고 하겠다.<sup>38)</sup>

## V. <劉生> 표제 시가의 전승

魏秦南北朝 이후 중국 시단에 詠俠詩歌의 활발한 창작과 사회 전반적으로 俠를 수용한 것에 비하면 <劉生> 표제 시가는 여타 詠俠詩歌에 비해 활발하게 창작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劉生>을 표제로 한 시가는 楊炯(650~692?)을 비롯한 文同(1018~1079), 曹勛(1098~1174), 高啓(1336~1374), 李先芳(1510~1594) 등 많은 시인들에 의해 꾸준히 창작되었다. 특히 劉生의 信義를 중시하는 기질을 바탕으로 한 호방한 기상, 그리고 報

35) 《漢書·外戚傳》과 《史記·衛將軍驃騎列傳》 참조.

36) 威裏驚鳴筑, 平陽吹怨笳.(徐陵, <劉生>)

37) 新室忌漢家.(徐陵, <劉生>)

38) 林香倫, 앞의 논문, 54쪽 참조.

國의 의지로 표현되는 정신을 중심으로 전승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劉生의 기질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시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楊炯의 시를 살펴보면;

劉生 楊炯	
鄉家本六郡,	그대의 집은 본래 서북변방 六郡에 있었는데,
年長入三秦.	나이 들어 陝西省 三秦 땅으로 들어가네.
白璧酬知己,	흰 옥으로 知己에게 보답하고,
黃金謝主人.	황금으로 주인에게 사례하네.
劍鋒生赤電,	칼날에는 적색의 電光이 생겨나고,
馬足起紅塵.	말발굽에는 붉은 먼지가 일어나네.
日暮歌鐘發,	해가 저무니 歌童 소리 울리고,
喧喧動四隣.	시끄럽게 사방으로 퍼져나가네.

六郡은 西漢 시기 서북 변방이며, 三秦은 長安이 있는 陝西省 일대를 말하는데, 盧照鄰 등에서 표현된 <劉生> 시와 마찬가지로 劉生은 報國의 의지를 지니고 변방에 나아가 전훈을 세우고자 하는 의지를 상징하고 있는데, 시에서 천하를 주유하며 전장을 누비는 劉生은 곧 시인의 의지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 北宋의 文同은 이러한 기상을 지닌 俠客 劉生을 칭송하면서, 이를 계승하는 영웅이 없는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劉生 文同	
千古推任俠,	예로부터 俠客을 추앙하니,
彼劉生者何.	저 劉生이라는 자 누구인가?
提槌击朱亥,	槌를 들어 친 주해 같은 이요,
引劍刺荆軻.	검을 빼어들고 찌른 형가 같은 이라네.
飲肆扶頭出,	흠뻑 취하여 머리를 받혀 나오고,
歌樓掉臂過.	기루에는 팔을 흔들며 지나가네.
無人繼義勇,	아무도 의로움과 용기를 잇는 이 없으니,

矣陝氣消磨。 關隴의 기운은 다하여 없어지네.

關隴은 關中과 隴西 지역을 말하는데, 北周의 宇文泰는 關中의 옛 영광을 재현하고자 胡漢 연합정치체제인 關隴集團을 만들었고, 이는 隋唐 시기 정치권력의 중심이었다. 시에서는 기상은 다른 어떤 俠士들보다 앞서며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俠客 劉生을 흠모하는 심정과 함께 지금 세상에 이러한 의로운 이가 없음을 안타까워하였다.

明代의 李先芳도 마찬가지로 俠客 劉生을 통해 호방한 기상을 강조하면서 특히 신의를 중시하는 劉生의 형상을 칭송하였다.

劉生 李先芳	
談兵羞燕頤,	병법을 논하니 燕頤(班超)이 부끄러워하고,
負氣持虬須.	호기로움을 자부하니 虬髯(崔琰)을 쓰다듬네.
朝彈上林雀,	아침이면 상림원의 참새 쏘고,
夜醉酒家胡.	밤이면 호희의 주막에서 취하네.
片言傾四座,	한마디 말은 사방 좌중을 기울이게 하고,
千金值一斗.	천금은 한 그릇의 밥과 같이 여기네.
撫劍平津道, <sup>39)</sup>	검을 쥐고 平津侯를 배알하며,
挾殺李金吾.	의금부의 관리 李金吾를 挾殺하였네.

시에서는 《後漢書·班超傳》에서 班超의 형상을 두고 “燕頤虎額”의 상이라 하면서, 班超와 같이 뛰어난 將帥와 재상이 된다는 고사와 《三國志·魏書·崔琰傳》에서 “崔琰은 비록 형벌을 받았는데도, 집에 빈객을 통하게 하여 문 앞은 장사하는 사람의 집과 같다. 빈객을 대할 때 虬龍같은 수염을 기르고 얼굴을 직시하니 마치 노여워하는 것 같다”<sup>40)</sup>라고 崔琰의 호방한 기상을 표현한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시에서는 이러한 典故들을

39) 平津은 지금의 河北省 鹽山縣 남쪽으로 公孫弘이 平津侯에 봉해졌었다.(《史記·津侯主父列傳》 참조)

40) 琰雖見刑, 而通賓客, 門若市人, 對賓客虬須直視, 若有所瞋.(《三國志·魏書·崔琰傳》)

통해 劉生의 재능과 기상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였으며, 특히 신의를 중시하는 “千金值一廬”하는 古典俠의 질박한 성격을 지닌 영웅 俠士를 흠모하는 심정을 노래하였다.

영웅을 흠모하고 칭송하는 시가는 阮瑀(?~217)의 <詠荆軻>, 左思(250?~305?)의 <詠史詩>, 陶淵明(365~427)의 <詠荆軻> 등과 같이 주로 荆軻를 칭송하는 시가를 중심으로 창작되었었다. 또 《史記·魏公子列傳》의 魏나라 信陵君 魏無忌와 그의 식객인 朱亥와 侯嬴의 고사를 노래한 李白(701~762)의 <俠客行>과 王維(699~759)의 <夷門歌> 등은 모두 역사 영웅에서 소재를 취한 시가들이다. <劉生> 시가의 창작과 발전은 민간 영웅 俠士를 소재로 하였다는 점에서 영웅을 소재로 한 시가의 창작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주목할 것은 <劉生> 시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영웅을 소재로 하여 시가를 노래하고 있지만, 결국 노래하는 것은 “세상의 영웅들에게 부끄럽지 않노니, 비록 죽더라도 俠骨은 향기로울 것이네”<sup>41)</sup>, “비단 강개하게 기묘한 계책을 바친 것만 아니고, 의기와 신명으로 보답하는 것이라네”<sup>42)</sup>, 또 “초일한 기상은 秋鶻을 능가하며, 뛰어난 재능은 玉繩보다 빛나네. 등불 앞에서 보검을 보며, 눈 속에서 푸른 송골매를 어루만지네”<sup>43)</sup>라는 것과 같이 영웅 俠士의 호방한 기개를 칭송함이 주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영웅과 그의 일화가 시의 소재가 되지만, 영웅의 일대기와 사건이 서사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 노래하는 것은 호방한 기상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정신과 인격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sup>44)</sup>

41) 不慚世上英，縱死俠骨香。(李白，<俠客行>)

42) 非但慷慨獻奇謀，意氣兼將身命酬。(王維，<夷門歌>)

43) 逸氣凌秋鶻，清才瑩玉繩。燈前看寶劍，雪里按蒼鷹。(曹勣，<劉生>)

44) 陳山，<中國武俠史>(上海：三聯書店，1992)，140-141쪽 참조.

## VI. 나오는 말

俠은 信義를 중시하는 가운데 구속되길 거부하며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기질을 지녔고, 자신의 일보다 이웃의 불평등함을 먼저 처리하는 성격을 지녔다. 劉生을 소재로 한 시가의 창작은 이러한 기질을 지닌 영웅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중국 英雄頌詩의 典型이 된다고 하겠다.

<劉生> 시가의 창작은 난세에 영웅을 갈망하는 시인의 의지와 이상이 민간에 전래되는 劉生이라는 인물을 통해 표현된 것인데, 劉生은 초기에는 민간을 중심으로 활약하는 民間俠의 색채를 지니면서 주로 그 강개한 기상이 중심이 되었지만, 隋唐 이후에는 劉生의 강개한 기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報國의 의지와 결부하여 표현되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劉生 인물 자체의 일대기를 노래하기 보다는 그의 기상과 형상을 노래함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符節官”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劉生은 어느 정도 관료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俠의 탄생이 비록 기존 질서에 대항하여 출현했지만, 문인화 되고 정형화 되는 과정을 통해 왕법과 질서에 대항하기 보다는 제도권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상과 진취적인 기상 등을 칭송하는 것을 통해 민간에서의 영웅에 대한 기대와 시인의 報國과 入官에 대한 이상을 함께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곧 <劉生> 시가는 시인의 의지와 이상을 劉生이라는 俠에 기탁하여 俠의 공적과 용맹을 시인의 이상과 결부하여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 <참고문헌>

- 郭茂倩, 《樂府詩集》, (臺灣: 中華書局), 民國59(1970).  
司馬遷, 《史記》, (中華書局), 1982.  
班固, 《漢書》, (中華書局), 1962.  
李曉芹, <<樂府詩集>中的游俠詩>, 《山西大學師範學院學報》, 1996 제1期.

- 陳山, 《中國武俠史》(上海: 三聯書店), 1992.
- 陳平原, 《千古文人俠客夢》(北京: 新世界出版社), 2002.
- 陶春林·馬晶, <曹植<白馬篇>對魏晉南北朝游俠及游俠詩的導向作用>, 《江淮論壇》 第04期, 2007.
- 劉航, <劉生·王昌考>, 《北京大學學報》 第43卷 第5期, 2006.
- 張志和·鄭春元, 《中國文史中的俠客》(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 吳采蓓, 《魏晉南北朝詠俠詩研究》, 國立臺灣大學中國文學研究所, 碩士, 2005.
- 林香伶, <試論樂府詩中擬樂府現象的雕塑與再造——以游俠詩<劉生>系列創作為例>, 《中國古典文學研究》 第二期, 1999.
- 이치수, <中國古典詩歌에 나타난 俠>, 《中國語文學》, 제28집, 1996.
- 柳卓霞, <20世紀以來唐前詠俠詩研究的回顧與展望>, 《中國詩歌研究同態》 第2期, 2007.
- 劉若愚, 《中國之俠》(上海: 三聯書店), 1991.

### <Abstract>

This study surveyed how the episode and the idea about a hero transmitted in public based on Liu-Sheng series in knight poems were expressed into form and meaning.

Liu-Sheng' strong spirit was expressed in connection with the patriotism volition dedicated to the nation. Generally the song of Liu-Sheng' spirit and idea was not the song of his life, but the one of his spirit and idea. The creation of knight appeared against the existing law, but it was accepted in literary circles to sing the lifestyle and the strong spirit in the existing system instead of being against royal law and system. Through this, it was said to express public's expectation of

a hero and idea about poet' patriotism and entrance of government post.

The creation of poems written on Liu-Sheng is poems on knight errant which expresses the desire of a hero and a model of a poem of hero praise in China.

Key word : 劉生(Liu-Sheng), 詠俠詩(poems on knight errant), 劉生 표제의 詠俠詩(Liu-Sheng Series in Knight Poems), 英雄(a hero), 報國(patriotism), 文人社會(literary circles)